

자연이 들려주는 ‘숨결’과 ‘균열’을 예술로 번역하다

제11회 환경미술제, 오늘 개막
내달 24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작가 8인 참여… 기후위기 성찰
“자연과의 관계 사유하는 기회”

동시대 환경문제를 예술적으로 성찰하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제11회 환경미술제 ‘Whispers of Nature: 자연의 속삭임, 숨결부터 균열까지’를 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8인의 작가가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환경미술제는 지난 2013년 시작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적 감각으로 환기하며,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감수성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자연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연이 들려주는 미묘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그 다층적인 이야기를 ‘숨결’과 ‘균열’이라는 두 흐름으로 구성해 시각화한다.

전반부 ‘숨결’ 파트에서는 김수진, 선민정, 송필용, 이석중 작가가 참여해 생기가득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조용히 흐르는 자연의 온기와 평온함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며, 어둡게 조성된 전시 공간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 관객이 자연의 조용한 ‘인사’에 더 깊이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후반부 ‘균열’ 파트에서는 문선희, 엄기준, 정송규, 조정태 작가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토양오염, 해양오염, 산불 등의 비가역적 환경 훼손 문제를 예술적으로 다룬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남긴 생태계의 상흔, 자연이 전하는 무언의 속삭



김수진 작 ‘Figverse, oil on canvas’.

무등현대미술관 제공

임이자 비명과도 같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환경미술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감각적인 예술을 통해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과 내면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인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의 현실을 예술로 환기시키며, 자연의 숭고함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깊은 울림을 선사할 전망이다.

전시 기획을 맡은 박우리 무등현대미술관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자연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들, 속삭임과 같은 생명의 숨결,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쳐온 균열들을 예술로 번역한 시도”라며 “많은 관객이 전시장을 찾아 자연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조화로운 공존을 사유하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정보는 미술관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mdmoca>) 및 인스타그램(@mdmoca_2007)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서동환 작 ‘양동시장 천원국시’.

도시 일상을 예술로… ‘서구를 그리다’ 12일 개막

29일까지 서구 DJ센터서
참여작가 40명·작품 300여점

광주의 도시 풍경과 일상을 예술로 담아내는 제6회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단체전이 12일부터 29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화해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구를 그리다’를 주제로, 광주 서구의 골목, 상가, 사적지 등 다양한 도시 공간을 어반드로잉으로 표현한 작품 300여점을 선보인다. 총 40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구를 직접 발로 걸으며 마주한 장면들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려낸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어반스케치&드로잉 단체는 도시

의 공간과 서사를 예술로 기록해 온 작가들의 모임으로, 2023년 ‘광산을 스케치하다’(송정작은미술관), 2024년 ‘동구를 스케치하다’(무등갤러리) 등 지역 중심의 연례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여섯 번째 전시인 이번에는 광주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인 서구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는 ‘작한 서구’, ‘골목 상가’, ‘천원국수’, ‘도심 속 풍경’, ‘맨발로 서구’, ‘5·18 사적지’, ‘사라져가는 도시 풍경’, ‘서구 핫플레이스’ 등 서구 고유의 장소성과 정서를 반영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작가들은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 도시가 품은 이야기와 사람들의 삶을 시각적으로 풀어내 서구의 과거와 현재, 일상과 감정을 담아냈다.

박찬 기자

의재미술관, 성인 대상 사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12회 운영

의재미술관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사군자-의재의 정신을 나의 언어로 그리다’를 오는 16일부터 10월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2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화와 사군자에 관심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4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한 선

착순 모집으로 참여자를 접수 받는다. 접수는 의재 미술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확인한 후 이메일(uijae-museum@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은 의재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의재 허백련의 예술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실기와 감상, 장작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박찬 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위안부’ 피해자 기억하는 전시 광주서 열려

오늘부터 ‘꽃잎 - 240, 233, 7’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고통과 삶의 의미를 예술로 기억하는 전시 ‘꽃잎 - 240, 233, 7’을 4일부터 9월11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으로, 성유진 작가가 기획하고 손만석, 김진남, 박은정, 조근수, 임창숙 등 총 6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 제목에 쓰인 숫자 ‘240, 233, 7’은 지난 2

월 기준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사망자 233명, 생존자 7명을 의미한다. 점점 줄어드는 이 숫자는 사라져가는 기억의 위기를 상징하며,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오늘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다.

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기억’ 섹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다루고, ‘공감’ 섹션에서는 고통의 기억을 회화로 승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치유’ 섹션에서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희망과 연대, 존엄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술을 통한 기억과 치유의 여정을 관객에게 제시한다.

특히 개막일인 4일에는 전시와 연계해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조근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을 성유진 작가와 시민 3인이 함께 착용하고, 서로의 옷에 ‘버려진 꽃’을 꽂아주고 나눠주는 행위예술이 진행된다. 이때 사용되는 꽃은 광주 영락공원 공동묘지에서 수거한, 버려진 조화와 생화들로, 잊혀진 넋을 기리는 상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퍼포먼스는 기억의 공유와 연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징적 예술 행위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박찬 기자

“전시 보러 가서 물놀이도 즐겨요”

과학관, 물과학체험장 운영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도심 속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물과학체험장’이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 따르면 올해 물과학체험장은 120cm 높이의 대형 풀을 추가하고, 초대형 그늘막과 함께 워터 발리볼, 물놀이 에어바운스, 울인원 슬라이드 3종, 물총 놀이장, 자석 낚시터 등 다양한 체험 놀이풀이 마련된다.

또한 20여개의 몽골 텐트를 이용해 대형 그늘막을 조성했으며, 냉풍기와 선풍기도 설치해 한여름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객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하거나 잔디밭에서 돛자리를 활용한 휴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기준

에 따라 매일 수질을 확인해 수시로 물을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수질 측정 전문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인명구조 자격증과 간호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13명(주말 16명)의 운영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며, 방문객들에게는 물놀이 유의 사항, 폭염 시 행동 요령, 생활 방역 수칙 등이 표기된 안전 부채도 제공된다.

물과학체험장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조혜민 국립광주과학관 연구원은 “여름 시즌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과학관의 물과학체험장의 인기가 매년 치솟고 있다”며 “깨끗한 수질관리와 다양한 체험 시설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과학체험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3회(회당 2시간, 350명) 운영되며, 이용 금액은 24개월 이상 어린이 6000원, 성인 3000원으로 입장 하루 전까지 회당 300명에 한해 사전 온라인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일 현장 발권을 통해 회당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물과학체험장 사전 온라인 예약은 과학관 온라인 매표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